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맞손’…공식교류 본격화

정남진 물축제 교류단 태국 방문
공식 교류행사·홍보 부스 운영도
치유·액운 씻는 ‘물’ 공통 분모로
물축제서도 태국 공연단 초청 등

장흥군이 최근 태국에서 열린 송크란 축제와의 공식 교류행사를 통해 오는 7월부터 개최되는 ‘제18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의 포문을 열었다.

16일 장흥군에 따르면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글로벌 축제 교류단은 지난 13일 태국 방콕 시암스퀘어 광장에서 송크란 축제와 공식 교류행사를 가졌다.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이 참석했으며 태국에서는 태국관광청 닛 크룻손(Mr. Nat Kruthasoot)국장 및 부국장, 소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양측은 송크란 축제가 갖는 복을 받고 액운을 씻어내는 ‘손씻음퍼포먼스’와 장흥 물축제의 물의 의미인 장수, 건강, 치유를 나타내는 ‘편백수 건배와 물뿌림 퍼포먼스’로 공식 행사를 열었다.

특히 ‘정남진 장흥 물축제 in 송크란’ 홍보 부스에서는 K-문화에 관심이 높은 현지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K-여름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알리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했다.

장흥군은 지난해부터 ‘전남도 지역축제 글로벌화 교류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면서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축제 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식방문은 지난해 6월 ‘2024-2026 전남세계관광문화대전’ 선포식에서 장흥군과 태국정부관광청, 전남도가 맺은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같은 해 태국 송크란 축제 관계자가 장흥 물축제를 방문한 것에 대한 공식 답방 형식으로 이뤄졌다.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축제는 ‘물’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측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자는 목표 아래 협업체를 열고 있다.

군은 다가오는 정남진 장흥 물축제장에서도 태국 전통 공연단의 초청 공연, 태국 송크란 축제 홍보관 등을 운영하며 두 축제 간 끈끈한 협력관계를 지속할 방침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장흥 물축제의 ‘물’은 치유, 건강, 장수를 의미며, 태국 송크란 축제의 ‘물’은 액운을 씻어내고 복을 받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두 축제 모두 물을 통해 상대를 축복하는 공통점



지난 13일 태국 방콕 시암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정남진 장흥 물축제와 태국 송크란 축제의 공식 교류행사에서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정남진 장흥 물축제 글로벌 축제 교류단이 태국 송크란 축제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이 있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행사를 통해 K-문화에 관심이 많은 젊은 관광객들이 대한민국 대표 여름축제인 정남진 장흥 물축제를 기억하고 방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정남진 장흥 물축제는 오는 7월26일부터 8월3일까지 전남 장흥군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에서 개최된다.

특히 장흥군은 올해 정남진 장흥 물축제 준비와 노벨문학도시장흥 홍보를 위

해 탐진강변 도로명을 기존 ‘탐진강동·서쪽자전거길’에서 ‘물축제길, 노벨문학길’로 변경해 편의성을 높였다.

그동안 물축제장은 공중화장실 등 일부 편의시설을 제외하면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가 없어 군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올해부터 물축제장 내 위치 찾기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행사 부스 등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광양시, 현업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포스코안전문화체험관 연계 실시

광양시는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현업종사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지난달부터 포스코 안전문화체험관과 연계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안전방재그룹)와 협력해 광양시 산하 협업종사자와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2~3회, 1회 40명 내외 인원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은 이론 교육 2시간과 체험교육 1시간으로 구성됐다.

안전교육 중 이론교육에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 사고 사례, 작업 유형별 안전수칙 등을 설명한다.

이어 이론 교육 후에는 심폐소생술, 화재진화 및 탈출, 안전 보호구 착용 효과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포스코 안전문화체험관의 전문적인 안전교육 자원과 체험시설을 활용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능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안영준 기자

순천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전국 최초 일요일 진료 실시
취약계층 반려동물로 확대 운영

순천시는 조국동 반려동물 문화센터 2층에 위치한 반려동물 공공진료소에서 오는 20일부터 공공동물병원 중 전국 최초로 일요일 진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유기동물 대상에서 취약계층 반려동물로 진료대상도 확대 운영한다.

16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일요일 진료 실시로 관내 동물병원 휴무일에도 긴급한 치료와 진료가 필요한 유기동물과 취약계층 반려동물의 응급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진료소에서 응급 처치와 치·진료 후 중증인 경우 인근 대형 동물병원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반려동물은 심한 장애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소유의 반려동물로, 진료비는 유료이며 감면 적용된다.

진료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순천시민으로 방문 전, 유선으로 진료 가능 여부를 사전 상담하고 예약 후 방문해야 한다. 보호자의 신분증 등을 제시해야 하며 반려동물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대상별 2마리 이내, 마리당 연 20회까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은 휴일에 자녀가 아프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반려동물도 휴일에 아프면 공공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살기 좋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 반려동물 공공진료소는 지난 2023년 8월 담양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개소하며 현재까지 1600여마리의 유기동물을 치료, 전국 반려동물 공공진료소 중 유일하게 실질적으로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뒤집고 메치고’… 전국 장사들, 보성에 모였다

보성군은 지난 11일 개막한 ‘제3회 대한체육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가 선수들의 열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씨름협회가 주최하고 보성군체육회와 보성군씨름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서는 초등부부터 대학부, 여자부까지 총 933명의 선수가 출전해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기량을 겨뤘다.

보성군은 3년 연속 ‘대한체육회장기전국장사씨름대회’를 유치하며 전통 민속 스포츠의 계승과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군에서 씨름이라는 전통 스포츠의 뜨거운 열기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 기쁘다”며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 스포츠 문화의 다양성과 품격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



지난 14일 경남대 최성준 선수가 다리를 걸며 단국대 성민수 선수를 모래판에 내리꽂고 있다. 보성군 제공

고흥군, 와야 고흥스테이 2호 입주자 모집

내달 9일까지 신청
원룸형 11세대 모집

고흥군이 남양면 귀농귀촌행복학교 내에 신축 조성한 와야 고흥스테이 2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와야 고흥스테이 2호는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귀농어귀촌 복합 교육인프라 조성) 31억원을 투입해 조성된 공공임대주택이다.

단독 및 다가구주택 11호, 공동 실습농장, 세대별 텃밭, 농자재 보관창고 등을 갖추고 있으며, 지난달 준공됐다.

해당 시설에서는 고흥군으로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 임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체류 기간 동안 다양한 영농 정보와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다.

입주 세대는 원룸형으로 단독주택 5호와 다세대주택 6호 등 총 11세대를 모집하며, 세대별 텃밭도 함께 제공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흥군 외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으로, 입주 전까지 신청한 모든 세대가 고흥군으로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모집 기간은 이날부터 5월9일까지 3주간이며, 정량평가(연령, 가구수, 농어업 관련 교육 이수 실적 등)와 정성평가(귀농·귀촌 계획, 고흥 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입주 후 체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입주 희망 대기가 없고 체류 연장을 원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월 임대료는 15만원(보증금 150만원)이며, 냉장고, 인덕션, 에어컨, 블라인드 등 기본 옵션이 제공된다. 전기세, 수도세 등 각종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이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서식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외지인들이 고흥에서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편안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와야 고흥스테이 2호의 문을 열게 됐다”며 “귀농어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고흥에 정착할 수 있는 거점 공간으로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농식품부 주관 귀농귀촌 통합플랫폼 운영 성과평가 2년 연속 전국 1위, 2025년 대한민국 브랜드 명예의 전당 귀농귀촌 도시부문 7년 연속 수상 등 ‘귀농어귀촌 1번지’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가고 있다. 고흥=심정우 기자

‘우주랜드 조성’ 민간사업자 공모
고흥군, 내달 29일까지 제안 접수

고흥군은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의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공모를 오는 5월29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은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일원 부지(15만9612㎡)에 우주·항공 테마의 관람, 체험, 교육, 숙박 시설이 어우러진 체류형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를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민간사업 투자자를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증대,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지연된 바 있으나, 최근 법원의 관련 소송 기각 판결 등으로 행정적 불확실성이 해소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오는 23일까지 질의접수를 받고, 5월9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받은 후 같은 달 29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한다.

공모 마감 후에는 평가위원회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에 참여할 사업자는 지침서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평가를 통해 최고 득점자에게 사업협약 체결 등과 관련된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부여한다.

특히 사업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 구성 요건과 재무계획 중점 평가, 협상 기간 한정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흥 우주랜드는 우주항공과 관광을 접목한 대표적인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국내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창의적이고 우수한 역량을 갖춘 민간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흥=심정우 기자